

한국적인 Design의 코세르

배영진

Coser

Coser, the Korean Design

Young Jin Bae

Coser

1. 시작하는 말 - 그림에서 패션으로의 전환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던 터라 한국적인 문화의 접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한국적인 그림은 물론이려니와 정서 또한 빼놓을 수 없이 배웠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분을 풀어야 얻을 수 있음도 큰 몫이었다.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국화, 서양화는 같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의 기법이나 채색 등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물론 정서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결과로 보여지는 한국화의 특징을 나는 무척 사랑했던 것 같다. 서양화와 한국화를 비교했을 때 한국화는 입체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시각적인 부분에서 보여지는 평면에서의 입체적인 부분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사실적인 부분만을 접했을 때의 논쟁이지 우리 마음 속의 정서, 생각을 담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화의 특징 중 여백의 미라는 아주 큰 단어가 있다. 여백의 미는 한국화의 정서뿐 아니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의 정서와도 같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한 부분이 역시 디자인에도 통하지 않았나 싶다. 늘 그 정서가 싫지 않으니 항상 거기서 맴돌고 즐기고 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결국 그것에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 디자인으로 표출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인 그림을 하여야 했던 시절, 남편의 스페인 유학 시절에 준비해서 가지고 간 몇 가지가 있었다. 한국의 음식물도 있었지만 꼭 챙겨가야 한다고 했던 한복과 파티에 입을 수 있는 드레스와 같은 옷이었다. 처음 유학길 인지라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상은 너무나 달랐다. 한복을 입을 날은 거의 없었고 게다가 파티 드레스 역시 입을 일도 없었다. 한국의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민족의상과 같은 느낌의 옷을 입을 기회가 없었다.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이다. 이웃 친구들과의 모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었다. 편히 모여서 저녁을 들면서 와인을 마시며 흥이 나면 플라멩고와 함께 즐기며 춤도 추고 놀았다. 그때마다 그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부채라던가 스카프라던가 구두 등의 소품으로 연출된 복장을 하고 흥겹게 플라멩고를 즐겼다.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주말의 파티는 거의 매주 있었으나 거창한 이름의 파티분위기나 파티의상이 없어도 그 재미있는 파티는 늘 이어져 갔다. 이런 장소에 내가 준비해간 한복을 입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흥미롭고 예쁘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충분히 끌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내 숙연해지고 점잖아진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자랑도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저 어느 날 한국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옷을 꺼내 입어보고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복을 다시 가져왔던 생각이 난다. 지금 같으면 물론 꺼내서 이사람 저 사람 입혀도 보고 사진도 같이 찍고 못 추는 춤사위라도 보여 주었던...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복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2. 한복 - 나만의 생각과 표현

한국에 돌아와 인사동에 매장을 열었을 무렵 소위 개량 한복이라는 옷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한 장르의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었다. 표현된 언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강해서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복을 개량해서 만든 옷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한복 자체는 아름답고 전통적이고 그 품위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한복이 평상시에 입기에 불편하고 예복으로나 행사 때 입는 옷이라는 생각에서 생활한복이라는 말도 쓰여지고 있지만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이렇듯 관심은 많지만 제대로 구사된 언어조차도 갖기 못하고 출발되었다. 좋은 단어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Korea-Modern이라고 표현됨이 가장 접근된 말 같은데 그도 한국말로 표현하기에 적당치 않다.

외국에서의 일이 생각났다. 한복을 입자니 힘들고 또 다른 옷을 입으며 대처할 만한 옷도 없었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입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도 필요했다. 우리는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문화를 알려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음식도 먹어보고 옷도 입어보고 그들의 전통가옥에서 머물기도 하고,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고 교류하며 무엇인가를 느낀다. 그것이 문화의 체험이고 체험은 그들에게 반영되어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와인이 우리의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와인이 우리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리만큼 파고 들었다.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자리를 더 잡았다. 와인을 마셔야 하고 와인과 함께 따라온 음식들 게다가 그 어려운 와인 이름까지 외워가며 우리는 그 문화를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불과 10년도 못 미치는 시간에 이처럼 우리에게 깊숙이 뿌리를 틀었으니 말이다. 문화란 한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다. 부산물처럼 여러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좋은 문화를 가져다 와인만큼이나 널리 알려 보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와인 문화는 고급문화로 보여져 그 문화를 즐기지 않으면 문화인이 아닌 것 같은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진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한국의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나라에서의 옷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아야 했다.

우리가 입는 옷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서양 옷과 한국 옷. 서양 옷을 거의 다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옷은 전통 옷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양 옷은 장소, 때에 따라 아주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상황에 따라 입는 옷이 너무도 다양해 우리는 거의 서양 옷을 입고 산다고 보면 된다. 거기에 비해 한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예복, 상복 정도로 다양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하나 결혼식이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어떻게 한복을 입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불과 1세기전의 일들이었는데 그 후 서양에서는 그들의 의생활을 발전시켜 나갔고 우리는 어찌하다 보니 자기가 가진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뒤쳐져 버리고 말았을까?

3.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복은 늘 무슨 특별한 때에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과 옛 것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랐다. 예복으로만 입혀진 옷은 언제나 입을 수 없다는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푸근함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디자인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작은 간단했다. 짧은 저고리 보다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 거기에 화려하지 않은 소재의 누비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는 그 어느 화려함보다도 화려해 보이면서 푸근해 보이며 편안하게 느껴졌다.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디자인은 시작되었다.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아주 간단한 생각 누구에게든 편안하게 다가가는 디자인이 나의 마음을 사로 잡아버렸다. 늘 상 봐왔던 소재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귀해 보이고 내 눈을 갈 길을 찾은 사람처럼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시작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복 천보다는 옛날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한 천부터 찾아내기 시작했다. 유풀이라는 천을 찾으며 양단도 찾고 명주도 쓰기 시작했다. 한복 천에서 느끼는 화려함을 배제하고 숙고사 같은 생사의 질감 보다는 몸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기초로 하였다. 거기에 물론 고급스러움을 더해갔다. 수로 온 몸을 쌓았던 것은 아주 조금만 수로 표현하는 등 포인트를 두었다. 한복에서 가슴을 매었던 부분을 허리로 내려오게 하여 허리의 선을 느끼게 하였고 한복의 동정을 종이로 만든 일회용 동정에서 명주로 바뀌어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동 부분이 직선으로 된 것을 양장 소매로 바꾸게 하여 겨드랑이 부분의 남아서 접는 부분을 없게 하였다. 흔히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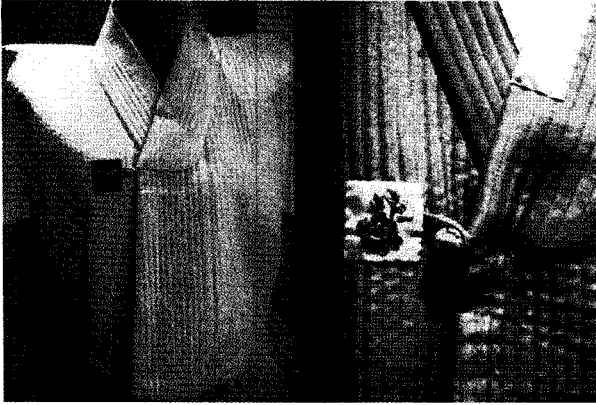


그림 1. 명주누비 목단수 저고리 명주누비 목단수 저고리 여입

혼식 때 신부가 입는 한복의 색도 조금씩 변하게 하였다. 초록 저고리에 빨강치마는 너무도 예쁘고 단아하지만 결혼하고 신혼 때만 입는 옷이다. 그리고 보니 그 다음에는 그 옷이 입어지지 않는다. 결혼 때 입다 보니 평상시 입을 일이 없고, 명절 즈음 입으려 할 때 임신을 한다든지 출산 후가 되어 옷이 안 맞게 된다. 그러므로 한복 입을 일이 없어지며 한복은 경제적인 옷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며 더욱 멀어져 가 버렸다. 그러기엔 한복을 사는 것이 아깝다고까지 하여 대여하는 옷까지 나왔으니 일회용 옷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아무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했고 디자인이 달라져야 했다. 여기에 당의를 변형하여 만든 저고리가 아

닌 자켓을 만들었다. 서양 옷에서 자켓을 만들다 보면 반코트가 나오고 긴 코트도 나오고 조끼도 나오고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런 아이템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어 Coser에서는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있다.

저고리에는 바지 입기가 어울리지 않지만 당의형 자켓이라고 명하여 디자인 된 이것은 바지, 스커트 어디에도 어울리는 것으로 천을 바꾸면 계절에도 상관치 않는 거의 완벽한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즈음 외국의 디자이너들이 궁금해졌다. 서양의 디자인들은 문화 자체가 달라 그들 나름의 문화적 요소를 옷에다 넣었지만 동양의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돌아보았다. 일본의 Yoji Yamamoto, Issey Miyake, 중국의 Vivien Tam, Anna Sui 등의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색을 내고 있었다. 일본의 색, 중국의 색은 물론 이려니와 거기에 세계적인, 현대적인 감각까지 가미되어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있었다. 그것들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시작은 그들의 본질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 면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일본의 정서, 중국의 정서를 잃어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며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시작점이 그러한 것 같다. 보여지는 비주얼한 부분이 많이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모습이 감추어져 보인다. 비주얼한 부분만이 일본의, 중국의 디자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일본의 정서가 중국의 정서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자기의 나라를 바탕으로 자기의 문화를 품에 안고 그것을 펼쳤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웠다. 그들을 통해 '문화를 디자인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단순한 색만이 아닌 천으로서가 아닌 형태의 디자인만이 아닌 문화를 디자인 해야겠다는 생각 아직 다 품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었다.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은 틈을 주지 않는다. 무엇과 같다 무엇처럼 생겼다 보인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나를 많이 흔들어 놓았다. 세월이 필요 했다. 매해 5%씩 5%씩 변해 가 보자고 하였다. 20년이면 100%가 바뀔 것이다. 97년부터 시작하였으니 이제 10년, 50%가 바뀌었다. 어떤 디자인을 새로 했을 때와 기존의 것에 힘입어 새로운 것을 만들 때의 느낌이 다른 것 같다고 느꼈다. 새로운 것에는 획기적이다, 기발하다고 평을 하지만 기존의 것을 알고 거기에 발전해나가는 모습은 칭찬의 여지도 많지만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나는 그 중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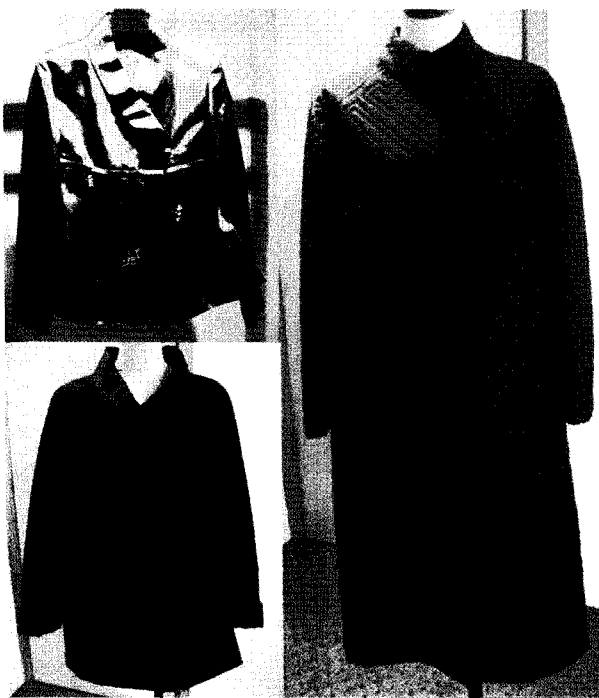


그림 2. 위의 왼쪽 사진 - 소목단 당의형 자켓
아래 왼쪽 사진 - 운문 명주 손누비 반코트(두루마기 변형)
오른쪽 사진 - 원자무늬 명주 손누비 긴코트

때에는 형태로, 색보다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잘 풀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리라 다짐한다.

옷을 디자인 하면서 간혹 재미있는 디자인도 해본다. 한국의 문양과 색등을 가지고 못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세계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다. 한국의 목가구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멋진 한국 가구를 두고 서양 것이 그렇게 좋겠냐는 얘기다. 화려함에서 소박함까지 우아한 비대칭의 즐거움 모두를 겸비한 목가구를 생각하면 절로 기분이 좋은데 정작 우리의 가구들은 골동품 상에나 있고 이태리 가구나 프랑스 가구들은 우리들의 집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으니.. 부엌 가구, 안방 가구, 사랑방 가구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그것을 전통으로만 생각하고 발전시키지 않음은 왜일까? 어느 때에 방문했을 때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너무도 멋진 디자인의 가구, 인테리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만 바꾸면 거진 서양의 어느 집이지 한국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물론 그 사람의 개성일 수 있다. 허나 그렇게도 한국의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주택의 방식이 바뀌어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여 주거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일로 아파트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해보았다. 침대가 서양 것이긴 하나 침장을 한국적인 모던한 것으로 풀고 서재엔 그 멋진 책가도를 디자인하여 붙이고 응접실의 테이블은 목활을 이용하여 해보고 불박이장은 나비를 그려내어 붙인 자개장으로 꾸며보았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모던함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라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이긴 하였으나 실생활에 맞추어 편안함과 실용성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일이기에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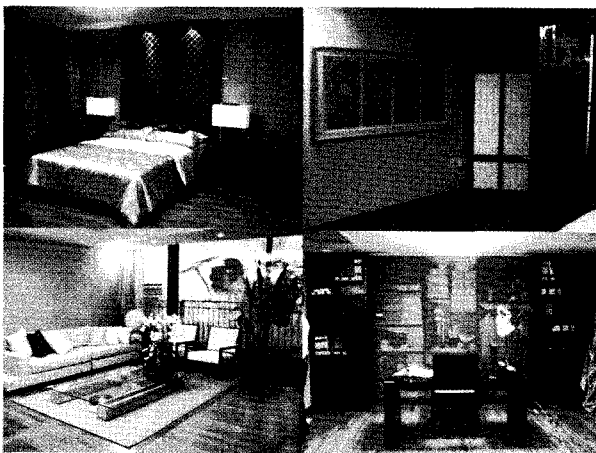


그림 3.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 한국적인 색과 패턴, 이미지를 인테리어에 접목시켜 고급스럽고 모던한 디스플레이를 연출하였다

하지만, 서양의 것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풍겨져 나오는 우아함과 절제된 멋스러움, 고풍스럽지만 진부하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배어 나와 좋은 결과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가전제품(김치냉장고)에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작업이었다.

우리 민화에서 보여지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자개로 그려내고, 냉장고 전면에 마치 날갯짓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붙여서 작업하였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보관하는 김치냉장고야 말로 한국적인 감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냉장고가 서양의 기계이기는 하나 전면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은 회화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국의 감성과 정서가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모던한 감각과 고급스러움이 적절하게 표출되었기에 가능하였던 일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가 담긴 디자인을 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의 서정적이고 서민적인 민화의 소재들과 한국의 문화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끌어내려 많은 노력을 하였다.

기업의 CI디자인과 한국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여러 가지 제품에 대입시킨 디자인상품의 개발이나,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고급 판촉물의 개발, 기업내부의 VIP용 선물 등이 대표적인 작업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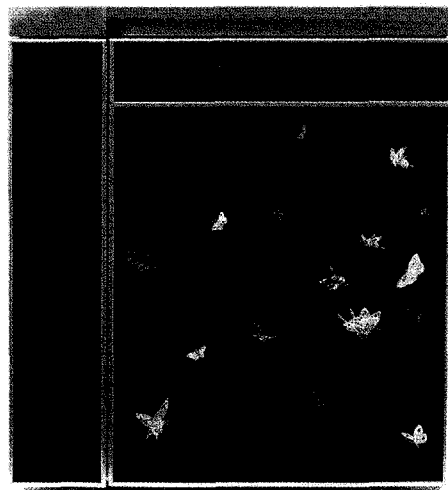


그림 4. '위니아 덤채'의 김치냉장고-김치와 와인을 담은 냉장고에 우리나라의 나비 자개로 작업하였다.

싸구려제품이 아닌 고급스럽고 멋스러움이 풍겨나는 품격 있는 제품들이었다.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가 담겼기에 가능했던 작업이라 생각한다.

4. 맺음말(결론)

디자인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케팅 부분이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 홍보를 위한 것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어떤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로 보았을 때 Coser는 ‘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았다. 색채의 아름다움, 영상에 연기력을 통한 드라마의 홍보도 중요했지만 의상을 통해서 보여준 접근도 아주 좋은 마케팅이었다 할 수 있다. 늘 무슨 때에만 특별한 장소에서 입는 그것도 40~50대가 아닌 젊은 층에게 한복이 다가가기에 ‘궁’이라는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은 긍정적이었다. 이것이 판매 전략으로까지 나아가 한국의 모든 젊은이가 구입하여 입길 원한 것 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한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모든 때에 한복을 변형한 옷을 입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최소한 우리의 명절, 즐거운 모임이라도 한 벌씩 갖고 싶고 입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서 디자인은 도시적이고 섹시하며 비대칭적인 느낌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전통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을 떠나 한국의 정서를 지닌 멋진 디자인을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림 5. 위 그림 - 단령 소매 & 넥라인 변형 언발란스 지퍼 원피스
아래 그림 - 한복 저고리 소매 변형 짧은 자켓

배 영 진

동국대학교 동양화 전공, 동대학원 동양화 전공
FGI(Fashion Group International) 회원
Parson Design School “Art In Sync” 전시
일본 나스(나키 클럽) “대륙에서 불어오는 실크의 속삭임” 개인 패션쇼
MBC 드라마 ‘궁’ 의상 및 소품 제작
COSER대표